

# 2022년도 지방직(서울시 2차) 한국사 해설

## [정답표]

1	2	3	4	5
②	②	③	①	③
6	7	8	9	10
①	①	②	③	④
11	12	13	14	15
①	④	③	②	④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②	④

## 1 - 김유신

문 1.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 ... (중략) ...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 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 ②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 ③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정답> ②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 군사와 마주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단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그'는 김유신(595-67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김유신은 김춘추의 신라 왕위 계승을 지원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김춘추(604~661)가 곧 신라의 제29대 국왕인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이다.

오답 해설>

- 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인물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다[살수 대첩, 612(고구려 영양왕 23)].
- ③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장보고(?~846)이다.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전남 완도예)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통일) 신라 흥덕왕 3년인 828년의 일이다(문성왕 13년인 851년에 철폐).
- ④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한 인물은 이사부(?~?)이다(562, 신라 진흥왕 23).

## 2 - 신라 지증왕 대의 일(국호 신라 확정)

문 2.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②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④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정답> ②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고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라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 즉 우산국을 복속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512, 신라 지증왕 13).

(신라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는 것은 지증왕 4년인 503년의 일이다(이때 '왕'의 호칭도 사용).

오답 해설>

- ①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③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의 일이다[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 ④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한 것은 발해 무왕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 3 - 발해

문 3.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다. - 「신당서」 -

○ 이 나라의 땅은 영주(營州)의 동쪽 2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희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천 리, 호는 십여 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 - 「구당서」 -

- ① 중앙에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③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하였다.
- ④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이 나라의 땅은 영주(營州)의 동쪽 2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희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천 리, 호는 십여 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이 나라'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성한 것은 발해 선왕 대(재위 818-830, 제10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중앙에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한 나라는 백제이다(260, 고이왕 27).
- ②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각 687(신문왕 7)/685(신문왕 5)].
- ④ 제가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4 - 조선 세종의 업적(공법 제정)

문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뢰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뢴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셨다.

- ① 공법을 제정하였다.
- ②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 ③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④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정답> ①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의 경험 많은 농부를 각 도의 감사가 방문하여 농사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뢰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뢴 바 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뽑아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왕'은 조선의 제4대 국왕인 세종(재위 1418-1450)임을 알 수 있다.

공법을 제정한 것은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참고로 공법이 지역별로 점차 시행하다 전국에 걸쳐 실시하게 된 것은 성종 20년인 148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조선 태조 3년인 1394년 10월의 일이다. 참고로 정종 즉위 후인 1398년에 (한양에서) 송도로 되돌아간 후, 태종 5년인 1405년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6전 체제로 완성되어 반포).
- ④ 정암 조광조(1482~1519)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한 것은 조선 중종 때(재위 1506-1544, 제 11대)의 일이다.

## 5 - 서얼

문 5.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직 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卿大夫)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 ① 향리
- ② 노비
- ③ 서얼
- ④ 백정

정답> ③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禁錮)하였으니, 아직 백 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경대부(卿大夫)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이들'은 서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서얼은 기술직 중인과 함께 중인(중간층)에 속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통청(通淸)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조선 철종 2년인 1851년에 이르러 서얼들에 대한 관직 진출상의 법적 제한이 소멸하였다(신해허통).

\*통청 운동: 서얼, 기술직 중인과 같은 중간 계층이 상위 관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 일종의 신분 차별 폐지 운동이다.

오답 해설>

- ① 향리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던 최하위 관리를 통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 ② 노비는 사내종[奴]과 계집종[婢]을 일컫는 말로, 전근대 사회에서 최하층 신분인 천인 중 하나이다.
- ④ 백정은 조선 시대에는 도살업과 유기제조업, 육류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



## 8 - 고려 초기의 사실(호족)

문 8.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하였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이다.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 ① 성골 출신의 국왕이 재위하였다.
- ②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하였다.
- ③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덩치가 큰 석불이 유행하였는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이다.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 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이 시기'는 고려 초기[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전기]에는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하였다.

오답 해설>

① 성골 출신\*의 국왕이 재위한 것은 진덕 여왕 때(재위 647-654, 제28대)까지의 일이다.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제29대) 이후에는 진골 출신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성골과 진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는 진골 가운데 일부 가문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스스로 성골이라고 불렀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다(특히 진평왕).

③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조선의 세도 정치기의 일이다(순조, 헌종, 철종, 19세기 전반).

④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정국을 주도한 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다(조선 중·후기).

## 9 - 고려와 조선 시대의 역사서

문 9.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ㄴ.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ㄷ.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  
 ㄹ.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③

ㄱ.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1145, 고려 인종 23)..

ㄴ. 이규보(1168~1241)의 『동명왕편』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1193, 고려 명종 23). 옳은 설명이다.

ㄷ. 안정복(1721~1791)의 『동사강목』은 기사 본말체가 아니라 강목체\*로 역사를 서술하였다(1778, 조선 정조 2).

\*강목체: 역사를 연·월·일순에 따라 강과 목으로 기록한다. 우리나라에서 강목체 역사 서술은 성리학이 발전한 17세기 이후 나타났으며,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이 대표적이다.

ㄹ. 유득공(1748~1807)의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784, 조선 정조 8). 옳은 설명이다.

이상의 역사서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ㄴ과 ㄹ'이다.

# 10 - 조선 영조 재위 시의 일

문 10.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재위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은?

팔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역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  
 ... (하략) ...  
 - 『어제문업(御製問業)』 -

- ①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 ②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 ③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④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되었다.

정답> ④

'팔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둘째는 균역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나'는 조선의 제21대 국왕인 영조(재위 1724-1776)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처로 나와 있는 『어제문업(御製問業)』은 영조가 80세가 된 1773년(재위 49)에 영조가 지난 재위 기간의 치적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평가한 4언8구체의 율문이다('어제'란 임금의 직접 지은 글).\*

\*영조는 여기서 당쟁을 막으려 한 탕평책, 균역이 승려에게까지 고루 미치게 한 균역법,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라는 청계천 준설, 여종(여노비)에게 부과된 공역 폐지, 서얼들에 청요직 개방[등용], 환모 폐지를 자신의 여섯 가지 치적으로 꼽았다. 여기서 환모란 '춘궁기에 빌린 다음에 추수 후에 갚는 곡식이 새와 쥐에 의해 훼손될 것을 가정해서 10%를 더 받는 제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영조가 경국대전[속대전]에 따라 폐지하였다.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것은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익익재 홍봉한(1713~1778)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 경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백과사전이다.

오답 해설>

- ① 장용영을 창설된 것은 조선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② 나선 정벌이 단행된 것은 조선 효종 대(재위 1649-1659, 제17대)의 일이다[1654(효종 5), 변경/1658(효종 9), 신류].
- ③ 홍경래(1771~1812)의 난이 발생한 것은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

# 11 - 독립문 건립

문 11.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 ②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④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정답> ①

위에 '을미사변', 가운데에 '(가)', 아래에 '러일 전쟁'이 제시되어 있다. 명성 황후(1851~1895)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있었던 것은 조선 고종 32년인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의 일이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05년 2월 10일의 일이다(일본이 러시아에 선전 포고, 1905년 9월 5일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 체결).

(독립 협회의 주도로) 독립문이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건립된 것은 1897년 1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을사늑약의 강요 결과)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
- ④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이 (사실상) 중건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의 일이다(~1865년 음력 4월부터 중건 시작).

## 12 - 고려 우왕 재위 시의 일

문 12.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 ①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②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 ③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였다.
- ④ 요동 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정답> ④

'왕의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였다.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인임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친 '왕'은 고려의 제32대 국왕인 우왕(재위 1374-138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요동 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1335~1408)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은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5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이종무(1360~1425)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조선 세종 원년인 1419년의 일이다.
- ②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한 것은 고려 원종 11년(1270.6)에서 원종 14년(1273.6)까지의 일이다.
- ③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철령 이북 지역을 수복한 것은 고려 공민왕 재위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 13 - 물산 장려 운동

문 13.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 ②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되었다.
- ③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 ④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켰다.

정답> ③

맨왼쪽에는 '우리는 만제 물품을 만들자. 우리의 원료 자본 기술로', 가운데에는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조선 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맨오른쪽에는 '남의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몰살게 된다'라는 표어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운동은 1920년대에 널리 행해졌던 물산 장려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0.8~1930년대 말).

일부 사회주의자는 물산 장려 운동을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된 운동은 (조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다(1922.11~1945.8).
- ②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 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종래의 허가제 「회사령」 철폐 등을 계기(신고제 회사령으로 전환)로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이 용이해지자 이를 저지하여 '민족 자본'을 지키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 ④ 물산 장려 운동은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킨 운동이다.

## 14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문 14.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④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제39조 ①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②에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은 곧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유신 헌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한 것은 제8차 개헌 때의 일이다(1980년 10월 공포)(제45조).

오답 해설>

- ①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 규정을 두었다(제59조 1항,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③ 유신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제103조 1항,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④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제53조 1항,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 15 - 5세기~6세기의 주요 사건들

문 15.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신라의 한강 유역 확보    (나) 관산성 전투  
 (다) 백제의 웅진 천도        (라) 고구려의 평양 천도

- ① (가)→(라)→(나)→(다)
- ② (나)→(다)→(가)→(라)
- ③ (다)→(나)→(가)→(라)
- ④ (라)→(다)→(가)→(나)

정답> ④

(가) 신라가 한강 상류 유역을 확보한 것은 진흥왕 12년인 551년의 일이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한 것은 진흥왕 14년인 553년의 일이다(신주 설치,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것은 555년의 일).

(나) (신라와 백제 사이에) 관산성 전투가 벌어진 것은 554년의 일이다(신라 진흥왕 15, 백제 성왕 32).

(다) 백제가 웅진(오늘날의 충남 공주)으로 천도한 것은 문주왕 원년인 475년의 일이다.

(라)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라)-(다)-(가)-(나)'가 된다.

# 16 - 강조의 정변(거란의 제2차 침입)

문 1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의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 ①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②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하였다.
- ③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
- ④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하였다.

정답> ③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가)은/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거란의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 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가)은/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의 무신 강조(?~101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거란 성종[재위 982-1031, 요(거란)의 제6대 황제] 강조는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하였다(강조의 정변, 1009년 고려 목종 12). 거란은 이를 구실로 이듬해에 재차 침입하였다(거란의 제2차 침입, 1010년 현종 원년).

오답 해설>

- 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부식(1075~1151)이다(1135, 고려 인종 13).
- ②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한 인물은 윤관(?~1111)이다(1104, 고려 숙종 9).
- ④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6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한 인물은 서희(942~998)이다(993, 고려 성종 12).

# 17 - 율곡 이이

문 17.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성학집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

- ①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 ② 『동호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 ④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정답> ②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성학집요』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의 밑줄 친 '저'는 율곡 이이(1536~1584)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이가 『동호문답』을 저술한 것은 조선 선조 2년인 156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예안 향약을 만든 이는 퇴계 이황(1501~1570)이다(1556, 명종 11, 경북 안동). 이이는 서원(청주) 향약, 해주 향약을 실시한 바 있다[각 1571년(선조 4)과 1577년(선조 10)]. 참고로 해주 향약은 해주 석담 지방 향민 전체를 대상으로 입약된 것이 아니라 해주 지방의 유생이나 향사족들이 권선징악과 상호부조를 통하여 향사풍(鄕士風)을 강화하게 하기 위한 향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된 한국 향약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③ (안향을 제사지내기 위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이는 (풍기 군수) 주세붕(1495~1554)이다(1543, 중종 38). 이후 퇴계 이황의 건의에 따라 명종에 의해 '소수'라는 이름으로 최초 사액되었다(1550).
- ④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은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제1차)과 정종 2년인 1400년(제2차)이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

## 18 - 안중근 의사

문 18.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 (중략) ...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국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ㄱ. 일본에서 순국하였다.
- ㄴ.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 ㄷ.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 ㄹ.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④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국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마땅히 만국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는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하고 재판을 받은 안중근 의사(1879~191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 ㄱ. 안중근 의사는 중국 뤄순 형무소에서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였다.
- ㄴ. 백범 김구(1876~1949)에 의해 한인 애국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것은 1931년 10월의 일이다.
- ㄷ. 안중근 의사는 뤄순 형무소에서 순국하기 직전까지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
- ㄹ. 안중근의사는 1907년 7월 북간도로 망명하였고 같은해 11월경에 연해주로 건너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1908년에는 대한의군참모총장 겸 특파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의 자격으로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침투,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 19 - 반민족 행위 처벌법

문 19.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①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②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 ③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 ④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정답> ②

제1조로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법률은 (제헌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22일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즉 '반민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 21일의 일이다. 따라서 반민법이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반민법은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제헌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의회였고,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하여 제2대 국회가 국회 의장을 선거하기 전날인 1950년 6월 18일까지 존속하였다.
- ③ 반민법에 근거하여 1948년 10월 23일 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줄여서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가 설치되었다.
- ④ 반민법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노덕술, 김태식 등). 옳은 설명이다.

## 20 - 약산 김원봉과 단재 신채호

문 20.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 ① (가)는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고, (나)는 '국혼'을 강조하였다.
- ② (가)는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고, (나)는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③ (가)는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고, (나)는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 ④ (가)는 황포 군관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나)는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하고,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글은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의 부탁을 받고 단재 신채호(1880~1936)가 지은 '조선 혁명 선언'임을 알 수 있다(1923.1).

김원봉은 황포 군관 학교에 4기생으로 입교하여 훈련받은 바 있고(1926.3~10)\*, 신채호 역시 (백암 박은식과 함께)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한 인물이다[독사신론(1908.8), 조선사연구초(1925), 조선상고사(1931)].

오답 해설>

- ① (중국 관내인 한구에서) 조선 의용대를 결성을 이는 약산 김원봉이 맞지만, '국혼'을 강조한 이는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
- ②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운 이들은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고(1919.5), 형평사를 창립한 이들은 경남 진주의 백정 출신들이다(1923.4).
- ③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한 이는 몽양 여운형(1886~1947)이고(1944.8), 식민 사학의 한국사 정체성론을 반박한 이는 사회경제사학자인 백남운(1894~1979)이다(1933년에 조선사회경제사, 1937년에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을 출간).

- 이 상 -